

건강의료

치과에서도 에이즈 검사 한다

빠르고 간단한 진단법 '오라퀵 어드밴스' FDA승인

이제 치과에서도 빠르고 간단하게 에이즈(AIDS) 원인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다.
조선대 김수관 치대학장은 "잇몸을 통해 통증없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에이즈 검사로서 FDA승인을 받은 'OraQuick Advance(오라퀵 어드밴스)' 시술이 최근 환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오라퀵 어드밴스는 면봉 형태의 간이 키트를 이용, 잇몸이나 구강점막에서 물질을 채취해 20분만에 에이즈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시술이다.
이 시술은 에이즈 검사를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낼 필요없이 치과를 방문할 경우,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편리함이 특징이다.
최근에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치과계에서도 전파성 감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치과에서는 진료나 시술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수술 전 에이즈 감염 검사는 적극 권장돼야 한다는 게 목소리가 높다.

미국 치과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예를 보면 1988년 미국 치과의사 Klein이 환자를 통해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 1990년에도 미국 치과의사 David가 감염돼 6명의 환자에게 재 감염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에서 치과의사(3명), 치과대학생(2명), 소아 치과전문의(1명), 치주전문의(1명) 등 7명의 치과의료인이 감염됐다.
이에 따라 치과계에서도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치과의료인의 감염 뿐만 아니라 치과에서 환자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모르고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지혈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술 후 정상인 보다 회복력이 느리고 면역력이 떨어져 2차 감염 우려 또한 높기 때문이다.
김수관 학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인 입장에서는 감염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구강 관련 수술 환자들은 수술 이전에 에이즈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전남대병원 공동 주최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

심근경색증이란?

'6시간내 병원 도착'이 생사 가른다

협심증(狹心症)은 심장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고, 심근경색증(心筋梗塞症)이란 심장의 혈관(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이 과사(餓死)되어 생기는 질환이다.
심근경색증은 인간의 질병 중 가장 사망률이 높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50% 정도가 사망하고 병원에 도착해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사망률이 10% 정도나 된다.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전남대병원 심장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2천81명 중 155명이 사망해 사망률은 7.4%에 달했다.
<심근경색증 원인> 증상은 매우 심한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식은 땀, 메스꺼움 등이 함께 나타난다. 가슴의 통증은 짓누르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고 어깨나 팔로 퍼질 수 있다. 가슴의 통증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이라 흔히 표현한다.
심근경색증의 발생 주된 원인으로서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가족력으로서 부모 형제 중 심장병, 뇌졸중(腦卒中)이 있는 경우가 많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근경색증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 연구팀은 대한순환기학회에서 창립 50주년 연구 사업으로 '한국인 심근경색증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과제가 선정돼 전국의 50여 대학 및 종합병원을 대표, 최근 5년간 연구해 많은 결과를 국내외 학회에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2만 8천명 이상의 심근경색증 환자의 자료를 모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년층의 심근경색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었으며 심근경색증 환자의 절반 정도가 고혈압 환자였고 약 3분의 1 정도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다. 즉, 고혈압과 당뇨병을 잘 조절하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장년층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우리나라 40대 성인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우리나라 장년층의 심근경색증 환자의 3분의 2가 흡연자였다.
<심근경색증 전조 증상과 발생시 대응>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환자는 미리 나타나는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최근 열린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에서 정명호 교수가 심근경색증의 원인, 예방, 치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돌연사 주범...질병중 사망률 가장 높아 환자 절반 고혈압, 33%는 당뇨병 병행 가슴 30분 이상 아플땐 응급실 찾아야

전조 증상을 경험한다. 즉 가슴에 압박,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오거나, 갑자기 가슴 중앙 부로부터 어깨, 목, 팔 등에서 통증을 느낀다. 식은 땀이 나며 숨쉬기가 힘들면서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오목 가슴이 아프고 토할 수도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난생처음 이상한 가슴통증을 느꼈다면 병원을 찾아 심장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슴이 30분 이상 아프면 반드시 대학 혹은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다.
만약 심근경색증이 일어났을 경우 가능한 움직이지 말고 빨리 119를 불러 가까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한다. 119를 기다리는 동안 허 밑에 놓거나 뿌리는 니트로글리세린이 있으면 즉시 복용하고, 효과가 없는 단방 약을 사용하거나 체한

것으로 오인해 손 끝을 따거나 약국, 한의원, 개인병원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심근경색증은 발생 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만이 심장의 과사를 막을 수 있고, 늦어도 12시간 안에 내원해야 심근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심근과사 예방 시간=6시간 이내).
<심근경색증 치료와 예방>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해 막힌 심장혈관(관상동맥)을 풍선도자나 스텐트(혈관을 넓히는 스프링)를 이용해 뚫거나 넓혀주는 방법이 있다.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 환자의 70% 정도는 혈전이 녹아서 혈관이 뚫리게 된다. 심한 경우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해 혈전과 동맥경화증으로 막힌 관상동맥을 확인한 다음 관상

동맥 중재술을 뚫어준다.
심근경색증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이 있으면 약물과 식이요법 등으로 잘 조절해야 한다. 금연은 필수이며 술을 되도록 절제하는 것이 좋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받아야한다. 환간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방 약에 의존하다가 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심근경색증 환자의 식이요법은 병원에서 시술 후 초기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씩 심장에 부담이 가지 않게 섭취하고, 2~3일이 지나면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다. 기름기가 없는 음식을 심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고 금연과 술을 절제해야 한다.
심근경색증 치료 후 재활요법은 완전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개월 정도이다. 심근경색증 치료 후 1주에는 병원 복도에서 걷다가 퇴원하게 되는데, 퇴원 후 운동량을 점차 늘리다가 1-2개월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직장에 복귀하여 여느 때와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복지부 인터넷 중독 치료 협력병원 조선대병원 지정

조선대병원(병원장 김만우)이 최근 인터넷 중독 치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됐다. 28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매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심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인터넷 중독의 조기진단 발굴을 통한 예방과 중독 단계별 상담 및 치료지원을 조선대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는 것. 조선대병원은 올해 초등 4년부터 중등 1년생

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진단 발굴 및 상담치료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선대병원에서 이뤄진 종합심리검사와 심리치료,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계층 30만원, 차상위 이하는 50만원 이내에서 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되지 않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채임순 전남대병원 간호과장 광주시 간호사회 회장 연임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광월희 병원간호사회 제1부회장(동국대병원 간호부장)의 주재강연을 비롯해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면역 강화부동산의 매력 광고' (Immunity Strengthening Real Estate Charm Advertisement) featuring a grid of text and images.